

전남

지반 안정되고 겨울 일조량 많아 시설원에 적합

고흥만 간척지에 첨단유리온실을

전남도 민간투자자 모집 등 본격 유치 나서

전남도가 첨단 유리온실 사업을 고흥만 간척지에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유리온실 시범사업 후보지로 고흥만 간척지를 비롯, 경기 화옹간척지, 충남 석문간척지 등 3곳을 선정...

간척지 기반 조성을 위해 토목, 전기, 통신시설 사업비 등에 106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는 유리온실 육묘장, 저온창고, 선별집하장 등 시설비 380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고흥만 간척지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을 비롯, 국내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해도 될만한 지역'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특히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변 지역의 미래모습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이들 기반으로 주요 시설물, 관광지, 문화재, 도시공원 지역 등을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모델링해 여수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현실감 있게 서비스 한다.

의 조건을 적극 홍보, 투자 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하는 한편, 유리온실 경영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의·평가 과정을 거쳐 4월경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고흥만 간척지가 갖추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적극 홍보, 투자 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하는 한편, 유리온실 경영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기고 또 당기고" 전통방식 엿만들기 설을 앞두고 보성군 특산물 오봉리 강골마을 주민들이 24일 전통방식의 썬는 엿을 만들고 있다. 강골 썬는엿은 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면서 늘리기 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있고 바삭바삭해서 입에 달라붙지 않는 특징이 있다.

최근 퇴직 공무원들에게 1인당 순금 20돈(시가 400만원 상당)의 기념 메달을 선물(본보 21일자 6면)해 물의를 빚은 강진군이 부서간 책임 회피 공방으로 또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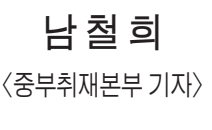
강진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퇴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순금 기념 메달을 지급하는 등 군민의 열세

말았다. 강진군의 '고가 금메달 파더'는 대다수 전남지역 시·군이 '공로 연수 지원'에 의한 연수경비, 훈련비, 자서전 등에 대한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역시

퇴직공무원 순금메달 공색한 변명

1억4천여만원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자숙하거나 상처받은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관련 부서간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강진군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념메달을 몰랐다"며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남철희 (중부취재본부 기자)

반면 홍보팀은 본보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순금 메달 선물에 대해 시행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또 다른 언론사에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성 없는 홍보체제로 신뢰성을 저버렸다. 이처럼 부서간에 입장이 오락가락하다 결국 순금

을 드러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순금 메달 선물 기사를 접한 군민들은 한결같이 '선심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강진군의 불명예스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여수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

여수시가 올 하반기부터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본격 서비스한다. 여수시는 25일 최첨단 기술을 통해 모든 공간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축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국비 12억을 지원받아 최첨단 항공측량기술(LiDAR)을 활용하여 여수시 전역에 대한 고정밀도 항공사진 촬영과 디지털 정사영상 등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을 완료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시설물, 관광지, 문화재, 도시공원 지역 등을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모델링해 여수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현실감 있게 서비스 한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공간측성을 실시간으로 통합해 원거리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한번 더 살펴 안정된 치안 유지”

김준철 보성경찰서장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성 치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준철(45) 보성경찰서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찾아가며, 한번 더 설명하고,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경찰 브랜드’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989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및 사이버범죄대터 대응센터, 경찰대학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나주배조합 부실경영 언제까지

알맹이 없는 대의원총회 1천여만원 지출

2007년엔 증대만에 1억2천만원 떼이기도

나주배조합이 불필요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막대한 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나주배조합과 조합원에 따르면 일부 대의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4일 80명의 대의원을 소집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안건은 정상적으로 심의조차 못한채 폐회했다.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최근 나주배조합 자체 감사에서 또다른 사례가 밝혀져 조합경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지난 13일 나주배조합 전체 이사 6명이 자체 감사의 의뢰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나주배조합은 지난 2007년도 조합에

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의 종대만에 1억2천여만원을 떼어 조합 자체적으로 결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A(59·나주시 금천면)는 “조합장이 조합 이사와 대의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총회 소집을 허용한 경우다”며 “이번 총회로 조합이 1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은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 만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종대만의 한도여 초과 문제는 당시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훈기자 srchoi@

전남 해양관광 개발사업 활기

해양리조트·마리나 항만 조성 등 2조원 투입

전남도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리조트, 펜션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남도는 또 개발 잠재력이 있는 무인도서 개발사업에 수립하는 것이 섬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실마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Galaxy Islands),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등과 연계해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관광 중심의 다기능 어항으로 변모시킨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도는 또 개발 잠재력이 있는 무인도서 개발사업에 수립하는 것이 섬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실마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신안 증도와 무안갯벌 등 갯벌 도립공원 2곳과 해양낙시공원, 해양종합공원 등 해양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대인동업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평주연원 신본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광문공인중개사 상담 전화 *011-623-8972 *010-3613-1189 *010-3602-2701 모텔 임대 매매 전문: 교향

사무실 임대 [농성동]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업무 최적 (현 금융기관 사용) 주차장 완비 지하철역 연계 (농성역) 임대면적 1층 / 200평 용도 : 사무실 임대문의 062)361-3001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